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1차 토론회

# 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일시 | 2019년 5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제1** 동물복지 축산 전환에 따른 농가 애로  
전중환 박사 (국립축산과학원)

**발제2** 동물복지 소비선택에 있어 제약과 문제점  
전진경 이사 (동물권행동 카라)

**토론** 동물복지축산 전환의 당면과제  
좌장 우희종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진선 부장 (서울YWCA)  
박성민 MD (롯데마트)  
김문조 대표 (더불어행복한농장)  
정진후 대표 (청슬원)  
김동현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 토론회 순서

---

### ■ 인사말씀(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

### ■ 주제발표

---

- 발제1 : 동물복지현황과 활성화 방안(전중환 국립축산과학원 박사)

---

- 발제2 : 윤리적 소비의 제 단계와 동물복지 소비 선택-제약과 문제점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 ■ 토론(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 박진선 서울YWCA 부장
  - 박성민 롯데마트 MD
  - 김문조 더불어 행복한 농장 대표
  - 정진후 청솔원 대표
  -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 

### ■ 질의응답

---



## 목 차

---

- 발제1 : 동물복지현황과 활성화 방안

(전중환 국립축산과학원 박사)

- 발제2 : 윤리적 소비의 제 단계와 동물복지 소비 선택-제약과 문제점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발제 1

# 동물복지현황과 활성화 방안

전중환 국립축산과학원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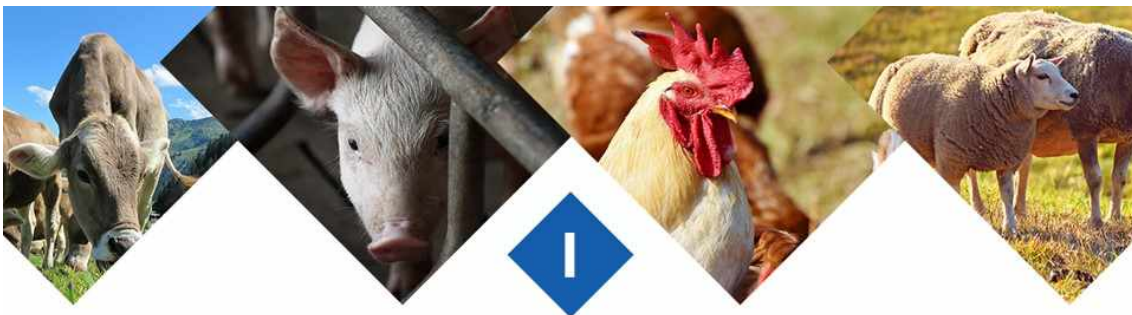


동물복지국회포럼

# 동물복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9. 5. 16

전 중 환



## 동물복지의 이해



동물복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동물



### ◆ 신석기 이후부터 가축으로부터 고기, 가죽 등 축산물 얻기 시작

말 : 운송, 경주 및 전쟁이 목적

소 : 토지경작이 목적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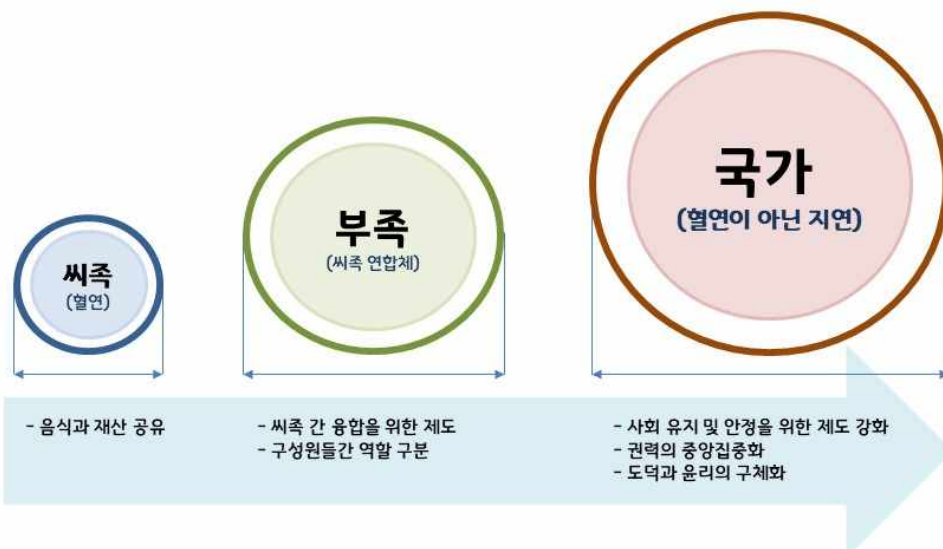
젖소와 염소 : 우유와 치즈생산이 목적



## 도덕적 가치의 확장



### ◆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시각과 관념이 확장되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 범위도 함께 확장됨



##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성의 재인식



### ◆ 인간과 더불어살아가고 교감하면서 반려자 혹은 친구로서 존중

-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인간본연의 성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줌



사람을 구한  
반려동물



사람에 의해 고통 받는  
반려동물



## 전시동물은 과연 동물학대인가?



### ◆ 동물원의 동물은 오락과 더불어 교육의 기능을 가지며, 동물을 이용한 경기 등이 전통이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음

- 전통문화의 계승인가? 동물학대인가? 논란은 진행 중..



#### 창살 없는 동물원 하겐베르크

- ▷ 하겐베르크는 독일의 유명한 동물원 이름이자 그 동물원을 만든 사람의 이름으로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동물원을 만들었으며 나중에 창살이 없는 '생태 동물원'으로 개량하여 유명해짐

## 실험동물의 이용과 윤리



### ◆ 인간의 안전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이용실험에 이용

- 동물 종(種) 사이의 차이에 따른 동물이용실험의 신뢰성 문제

- 3R원칙 :

Replacement(대체사용법 강구), Reduction(실험동물 수의 축소), Refinement(고통의 최소화)

#### 드레이즈 시험(Draize test)

▷ 화학물질(약물, 세제, 화장품 등)의 눈에 대한 자극성을 실험하는 방법

- 1940년대 드레이즈(J. H. Draize)에 의해 개발됨

- 눈물의 양이 적은 알비노 토끼의 눈에 직접 화학물질을 넣어 부작용을 실험함

- 토끼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된 채로 수일간 지속해서 실험함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



### ◆ 무분별한 밀렵, 남획 및 서식지 감소로부터 동물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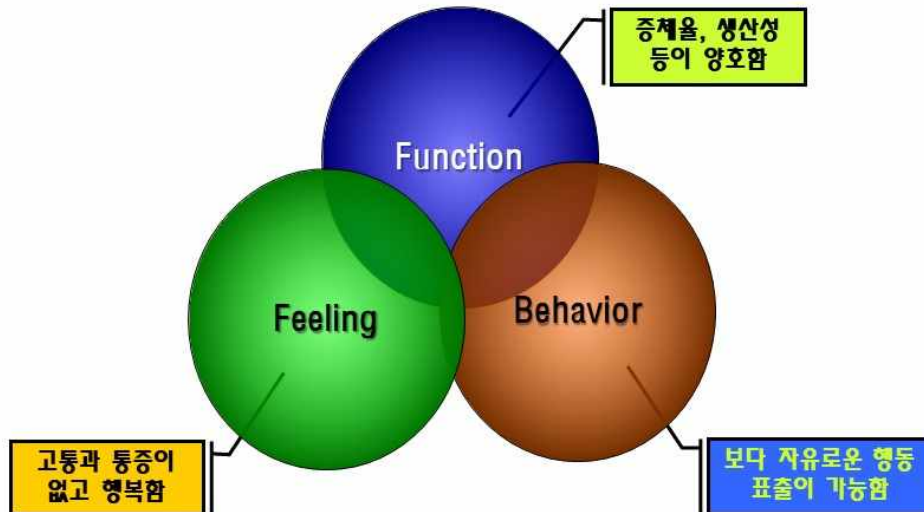
- 과거 200년 동안 100여종의 포유류, 160여종의 조류가 인위적으로 멸종됨



## 농장동물의 복지는 무엇이 문제인가?



◆ 농장동물의 복지는 경제성을 포함하는 스트레스의 최소화



## 동물복지와 동물권리의 철학적 배경



**스토아 학파 (Stoicism):**  
금욕과 평정을 최고선으로 규정

유물론과 심신론적 관점에서 금욕과 평정을 행하는 현자를 최고의 선



플라톤  
(Plato)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에피쿠로스 학파 (Epicurean school):**  
쾌락을 최고선으로 규정

감각적 경험, 정신적 쾌락 등 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중시



에피쿠로스  
(Epikur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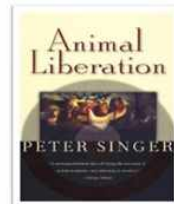


메트로도로스  
(Lampsakos)

“동물은 이성적이지 못하므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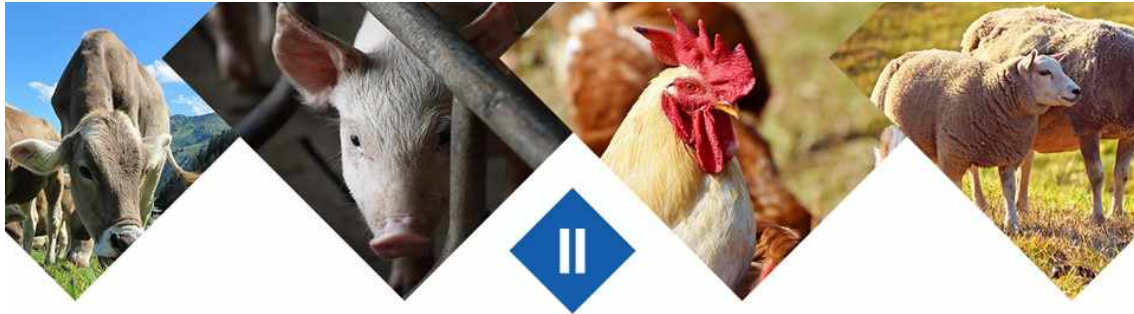
“동물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공리주의 윤리적 행위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피터 싱어  
Animal Liberation을 저술  
동물권리의 철학적 근간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 해외 동물복지 현황



동물복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 해외 동물복지 제도의 변화



#### ◆ 동물학대 방지에서 동물 보호로 법률 확대



영국

마틴법(1822),  
동물보호법(1911),  
동물복지법(1996)



미국

28시간법(1873),  
동물보호 연방기준마련



독일

제국동물보호법(1933),  
동물보호법(1972)



일본

동물보호관리법(1973),  
동물애호관리법(1999)

#### ◆ EU 동물복지정책 추진

: 2012년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용금지, 2013년부터 임신수를 사용금지



FAWC(Farm Animal Welfare Council)에서는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의견제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가축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UN에서는 동물복지가 모든 국가의 공통 목적이 되어야 함을 선언함

## 해외 동물보호단체



- ▶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 세계 최고 수준의 농장동물 복지 기준 제시



- ▶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세계동물보호협회

100개국 이상에서 1,000여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단체



- ▶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즈 등 주요 유명 햄버거 체인기업에 대해 동물복지  
준수의 요구를 관철시킴

## 유럽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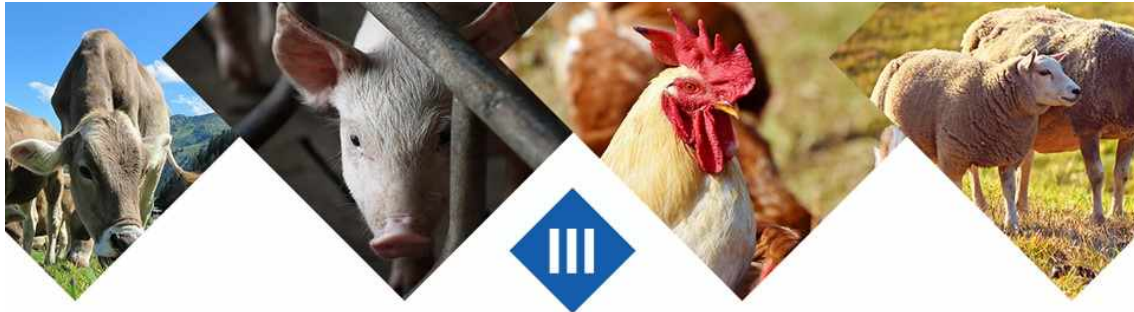
- ▶ 유럽 소비자들의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의식 변화

- ▷ 유럽 소비자들은 섭취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음

농장동물복지관련 정보 습득 방법 (복수응답)

방송 (51%) > 인터넷 (30%) > 신문 (29%) > 라디오 (16%)

- ▷ 약 74% 이상의 유럽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이 농장동물의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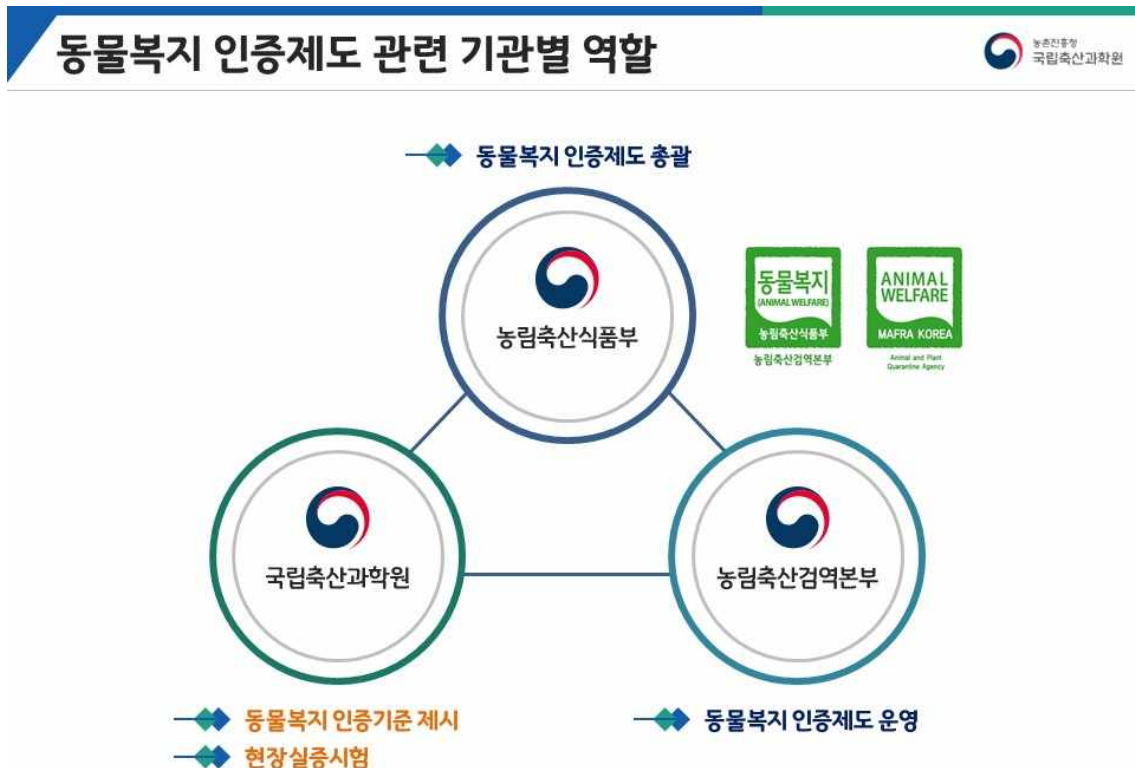
## 국내 동물복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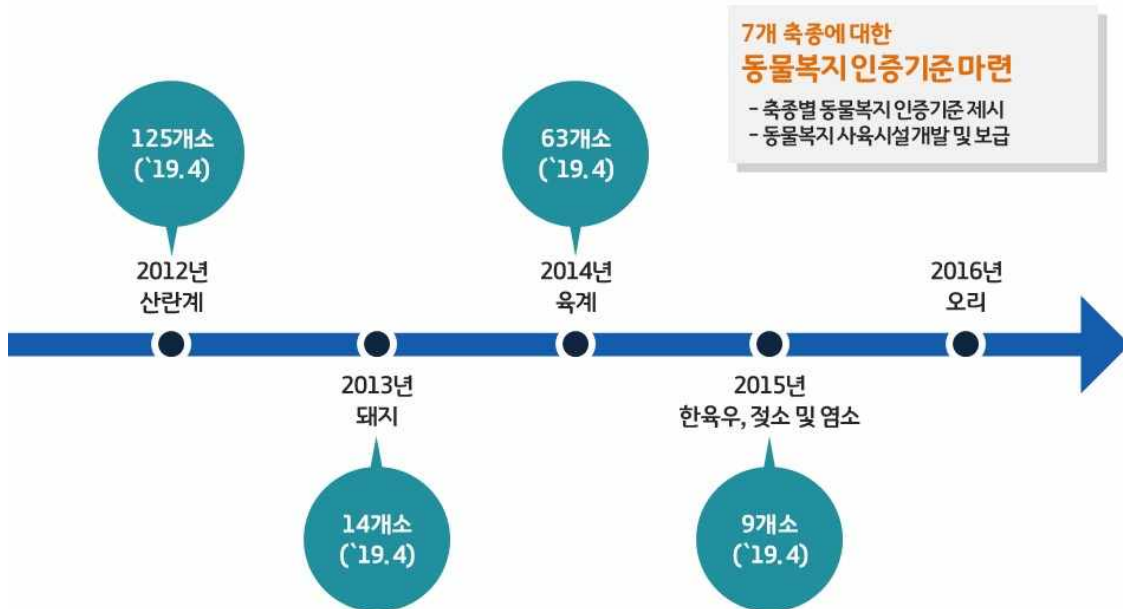
동물복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국내 동물복지 인식의 변화





## 축종별 인증제도 도입 및 현황



## 동물복지 사육시설 개발 및 보급



## 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보급



산란계, 양돈



한, 육우 및 젖소



운송 및 도축

## 향후 전망



### 동물복지인증제도의 확대

- 축종별 동물복지 인증농가 증대
- 동물복지 축산물 품질관리 확대



### 일반 축산농가대상 동물복지기준 강화

- 가축의 사육밀도 강화
- 감금 사육시설(임신스틀, 케이지 등) 사용금지
- 인위적 신체절단(강제환우, 견치절치 등) 금지



###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물 요구 증대

-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 요구
- 소비자들의 안전한 축산물 요구



## 개선방안



동물복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사회인식 변화



- ◆ 동물복지는 채식을 의미한다?
  - 신념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
  - 동물복지를 개선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 ◆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방사사육 해야한다?
  - 가축들에게 더 많은 본능표출의 기회를 제공
  -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 ◆ 동물복지적인 사육하면 질병발생이 없다?
  -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면역력 정상화
  - 만병 통치약이 아님



## 소비시장 활성화



**동물복지 달걀**  
(일반 달걀 대비 약 2~2.5배)



**동물복지 돈육**  
(일반 돈육 대비 두당 3만원)

- ✓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관리
- ✓ 윤리적 소비를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1.5~6만원/수)



**임신돈 군사장치**  
(1,200~1,800만원/대)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120~200만원/개)

- ✓ 동물복지 사육시설 설치비용 증가
- ✓ 동물복지 사육시설 사용에 대한 기술 부족
- ✓ 사육면적 증대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



# 감 사 합 니 다



## 발제 2

---

# 윤리적 소비의 제 단계와 동물복지 소비 선택 - 제약과 문제점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윤리적 소비의 제 단계와 동물복지 소비 선택- 제약과 문제점

2019년 5월 16일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 동물복지 의식과 현실의 괴리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오직 24.2%만이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는 2012년 도입되어 산란계와 양돈부터 인증이 시작되었으나 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리적 소비 트렌드를 생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일반 축산물에 비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이르지만 인증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한 경험은 58.2%에 그쳐 윤리적 소비의 의도가 실제 소비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복지 축산물 구매 경험자에게 일반 축산물과의 차이에 대한 설문에서 안전성이나, 위생 등 품질이 더 나았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아, 별다른 차이를 못 느꼈거나(28.5%), 동물복지에 기여한다는 보람이 있었다(25.3%)는 의견보다 월등해 동물복지축산물이 윤리적 소비의식 뿐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격이 일반 축산물에 비해 비싼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9.9%로 구입 의향이 없다

는 응답 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각 당과 대선 주자의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적잖이 화제가 되었었다. 이때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국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주요 의제로 유례없는 밀집 공장식 축산 문제와 세계 유일의 한국 개농장 문제 두 가지를 들고 해결의 단서를 찾는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 입안 없이 2017년 8월 결국 계란에서 맹독성 살충제가 검출되기에 이르렀다. 2016년 11월 사상 최대의 조류독감 4,000만 마리 살처분 광풍이 몰아친 바로 얼마 뒤였다. 이로써 우리는 공장식축산이 싼 값의 축산물을 제공하는 대신 우리에게 부과하는 ‘막대한 위험’과 ‘비용’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사태에 여기에 이르자 정부는 밀집 감금사육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정부 축산 정책 프레임의 대변혁 필요성과 윤리적 소비

그러나 현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우리 축산업의 생산액은 2008년 13조 6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무려 20조 2000억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 농가수는 급감했으며 축산물 자급율은 2005년 74.6%로부터 2017년 66.7%로 오히려 하락했다. 사육 농가수가 급감하는 동안 농가당 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5년 4,406만원으로부터 7,152만원이 되었다. 이 통계수치들은 우리 축산이 고도의 공장식 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 ‘사실’은 곧장 우리 축산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동물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로 치환’된다. 또한 일부 대형 농가의 수익구조만 개선되었을 뿐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국가 기반을 흔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축 전염병 살처분이 자행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축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많은 부분 허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돼지 스톨이나 배터리 케이지의 철폐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결단을 전혀 내리고 있지 못하다. 외려 공장식 축산의 대안으로서 동물복지 농장 확대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 동물복지농장 인증 제도도 십분 활용하지 못하며 과감히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물복지‘형’축산이라는 어중간한 정책들은 내 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국가가 인증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와 소비를 통한 생산 유통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 놓는 정책은 이를 건인할 힘이 없고 너무 느리다. 그나마 동물권행동 카라가 2015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의 실시 정도가 동물복지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된 정도이니 과연 이 정도의 소심한 처방으로 이미 파국에 이른 공장식 축산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있을까.

#### 윤리적 소비의 제 단계와 비거니즘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농장은 채 200개소에 못 미친다. 그나마 90% 정도가 산란계와 육계 농장들이다. 절대 다수의 돼지들이 감금틀에 갇혀 사육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산란계 약 7천만 마리 중 그나마 배터리케이지에서 벗어나 동물복지농장에서 키워지는 닭의 수는 이제 겨우 2% 수준이며 스톨에서 벗어난 돼지는 0.3%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결과로서 동물복지 축산물 중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달걀 정도에 그친다. 생협 등 두레 형식의 유통이나 친환경 급식 등 현지에서의 윤리적 소비 트렌드로는 막대한 육류의 무차별 소비 행태를 윤리적 소비로 전환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찾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다. 이마저도 소비 선택이 가능한 영역은 달걀과 일부 닭고기에 그치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는 복지 축산물이 너무 희소하고 홍보조차 되지 않아 아예 소비자가 선택권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영국 등 동물복지 선진국에서 동물복지의 수준을 점차 상향해 가며 윤리적 소비의 수준에 따라 방사 유기농부터 일반 축산물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아예 유통 업체에서 단계별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 정책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너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소비 트렌드도 정책적 지원도 태부족인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 동물복지 농장의 현주소는 판로가 없는데다 들이는 노력 대비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문제로 인해 전환을 위한 관심과 노력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복지 농장이 부족하나마 그래도 공장식 축산의 대안으로 실행되고 이어 방사유기농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없는 상태로 지지부진 세월이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2017년 한 해 소 87만 3500여 마리, 돼지 1천 6백 73만여 마리, 닭 9억 3천 6백만 마리를 도살해서 식탁에 올렸다. 하루에 소 2,393마리를, 돼지 45,836마리를 도살해서 먹었고, 1사람이 연간 약 20마리의 닭을 소비했다.

동물복지 인식 및 경제적 소득 수준별 소비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데서 오는 문제는 심각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수준에 맞는 윤리적인 소비를 시작하려 하지만 그리고 좀 더 상향해 나가려 함에도 정책적 제도적인 미비로 이를 주요 소비 트렌드로 엮어낼 힘이 전혀 없다. 이런 상태로는 윤리적인 소비의 힘으로 생산과 유통의 거대한 흐름에 변화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다.

#### 지속가능한 축산업 - 미래의 축산업 - 동물복지 유기농

공장식 축산의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후 시민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카라 등 동물권 단체들이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변화의 수준은 다양하고 실천의 의지 또한 다양하게 표출된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데로 여전히 육류를 소비하는 가운데 일부는 아예 비거니즘 채택이라는 윤리적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기도 한다. 비거니즘을 주장하는 서적, 집회, 다양한 모임이 생성되며 그 필요성을 어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참여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는 이를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윤리적인 축산물을 소비하고자 하거나 안전성과 건강을 위해 선택하려는 다수의 시민들이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의 존재는 현상에 안주하며 아무런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 이들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사회 변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개선 없는 공장식축산의 동물학대 현실,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못한 축산물의 문제에 눈떠 언제 비거니즘으로 전환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면 현실 개선에 동력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복지 농장주들은 판로 개척도 힘들고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경영 조건 때문에 한숨 쉬고 있다. 절대 다수의 닭과 돼지들을 감금틀에서 꺼내 주는 실행력은 외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다. 동물복지축산물 소비에 대해 양가적인 평가가 있다. 그래도 그게 윤리적이라는 평가와 여전히 비거니즘이 아니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동물복지 도축장이 전국에 총 5개소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의 동물들이 공장식축산 환경에서 신음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모든 이들이 비건이 될 수 없는 것도 또 한 축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윤리적 선택을 하려는 소비자에게 비건이 아니라며 윤리적 죄책감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전혀 옳지 못하다. 다양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에서는 탄력적이고 빠른 현실 개선이 요원하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 대장암과 같은 육류소비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도 막대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공장식 축산 농장으로 인해 환경 오염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협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은 현재의 축산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그래서 빠른 개선이 필요함을 어필한다. 그리고 미래의 농업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동물복지 유기농이다.

하루 100g의 육류를 섭취하던 사람 1,000명이 비건이 되면 하루에 100Kg의 육류가 덜 소비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 20%인 1천만 명의 국민들이 30g(20%)의 육류를 줄인다면 300,000Kg의 막대한 육류 소비가 절감된다. 생각해 보자. 하루 육류 섭취량의 70%를 대폭 줄이되 30%의 육류를 동물복지 축산물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받들어 수렴해야 할까. 육류 소비량을 줄이려 하거나, 소비량을 줄이되 최대한 동물을 학대하지 않은 유기농이나 동물복지 농장의 축산물을 소비하려는 ‘다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태산과도 같은 공장식축산 현실이다. 태산을 옮기기 위한 더 많은 공감과 동참을 조직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책임 있는 대안 제시와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제 윤리적 소비 결정 주체인 인격체를 비건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책임하고 치기 어린 일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과 변화를 돕지 못하면서 이를 빌미로 공장식축산 철폐를 미룬다면 명백히 무능한 책임 회피일 것이다.

M E M O

---

M E M O

---

M E M O

---

M E M O

---



## 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

|     |     |     |     |     |     |     |     |     |     |     |     |     |     |     |
|-----|-----|-----|-----|-----|-----|-----|-----|-----|-----|-----|-----|-----|-----|-----|
| 금태섭 | 김동철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원 | 김영주 | 김영춘 | 김진표 | 김학용 | 김한정 | 김현아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 맹성규 | 민병두 | 박정  | 박주선 | 박홍근 | 서영교 | 송옥주 | 신경민 | 심상정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성엽 |
| 유은혜 | 윤준호 | 이명수 | 이상돈 | 이석현 | 이양수 | 이용득 | 이용주 | 이인영 | 이정미 | 이찬열 | 이학영 | 이헌승 | 전현희 | 정병국 |
| 조배숙 | 주승용 | 진선미 | 진영  | 최재성 | 추경호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철호 | 황주홍 | 황희  |     |     |